



3면

이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음 3월 22일) 제27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내부개발 '눈 앞'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남북·동서도로 등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견인하고,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한 발 더 내딛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이 신청했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내부용지의 개발촉진을 물론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예타선정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2020년 5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2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25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새만금 북쪽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대부분 민간투자로 계획된 남측 관공래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의 접근성이 개선돼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위치도 (사진=전북도청 제공)

광역교통망 동서3축에서 시작해 국제협력용지까지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 선정

9191억원 투자, 내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8년 완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광역교통망 동서3축(국도30호, 부안 하서)에서 시작해 관공래지용지를 거쳐 국제협력용지에 이르는 20.7km, 왕복 4~8차로를 건설하며, 총 사업비 9,191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후,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부 개발 용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개발에

속도가 붙고 더불어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예비타당성 선정에 대해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긴밀히 협조해 심수 끝에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과 국가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권 정치·행정력은 물론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세 손가락 들고 구호 외치는 영화인들' 미안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국제영화제 집행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시네큐(Q) 전주영화거리 10관에서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정부 방침 따라 오늘부터 2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전북도는 5월 2일 종료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주간 1일 평균 확진자수가 8백 명대로 증가세에는 운영시간 제한 또는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단계 격상

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요 집단발생 원인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사를 추가로 발굴 시행하고, 5월 가정의달 대비 축제·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이동량 증가 최소화로 감염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전수감사 조치가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도내 17개 자활센터 1,855명(종사자 157, 참여자 1,698)에 대해 PCR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 5월 개최를 계획한 7개 축제·행사는 취소,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하고, 도내 14개 전 시·군에 개소 완료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적극 활용해 집단면역체계 형성과 폐기 백신 최소화를 위한 꼼꼼한 계획 수립으로 접종추진을 지속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원들, 부동산 투기 없었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해 '이상거래는 없었다'는 결과를 전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의 요구에 따라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조사를 마쳤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이상거래 미발견'

뢰도 제고를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대신 본인위와 필지 정보를 이용하는 대물본위 등 공무원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대인분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만여 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

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 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거래가 누락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교차해 꼼꼼히 살폈다.

조사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총 6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가 추출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상속에 따른 취득인 것으로,

나머지 3건은 조사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매매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를 거쳐 소명자료를 받은 결과 해당 토지 매매가 조사 대상 시점을 벗어났고, 의원 신분이 아닌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의 토지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제 37회 임시회에서 '지역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미영 단장은 "이번 조사로 공직 사회 전반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청자 상감 정사색명 유로문 매병' 전북 유형문화재 지정



부안군 청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자 상감 정사색명 유로문 매병'이 도자기로는 최초로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최근 열린 2021년도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청자 매병은

고려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2017년 9월 김완식 선생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작품이다. 매병 몸체에는 버드나무와 갈대 무늬가 흑백상감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몸체 중앙에는 '정사색(淨寺色)'이라는 글자가 흑상감으로 커다랗게 새겨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소장 청자 매병은 고려시대 문헌에 기록된 정사색 관사병이 새겨진 유일한 예로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를 겸비한 중요유물로서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향후 부안청자박물관 전시와 고려청자 연구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